

# “17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유지해도 연평균 4.8조 더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액을 단번에 늘리기보다는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2018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지원액이 현재까지 동결돼 있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양육비 부담 감감 효과가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비 부담이 큰 초·중·고등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이재명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공약 국내 11건 법안 발의...10만~50만 금액 달라 10만원 유지시 5년간 35조... 24조 추가 필요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대부분 만 18세 전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18세 이상 아동(구직 중에는 21세·대학 및 직업교육 25세까지)을 대상으로 월 250유로(39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득에 무관하게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지원한다. 0~2세는 첫째·둘째 기준 월 1만5000엔(14만원), 셋째 이상은 월 3만엔(29만원)을 지급한다. 3세 이상의 경우 첫째·둘째는 월 1만엔(10만원), 셋째 이상은 월 3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16세 이하(무요교육 재학 시 연장) 월 1250크로나(18만원)를 지급하고 다자녀 추가 수당은 별도로 지원 중이다. 영국은 16세 미만(교육·훈련 중이면 20세 미만) 첫째 아이에게 주당 25.60파운드(3만2천원), 둘째 이상은 주당 16.95파운드(3만2천원)를 지급하되 고소득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아동수당 수급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1건 발의돼 있다. 수급 연령 상향은 18세 전후로 큰 차이가 없지만 금액을 보면 10만원 유지부터 50만원 상향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면 현재보다 최소 약 24조원이 더 소요될 거라는 시나리오다.

예를 들어 지급처별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면 2026~2030년 5년 동안 총재정 소요는 11조4000억원이지만, 연령을 18세로 확대할 경우 5년간 35조

4000억원으로 24조원이 더 필요하다. 대상 확대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연평균 4조8000억원 커지는 셈이다.

지금 연령 확대와 함께 아동수당을 2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71조7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60조원, 연평균 1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지급액을 50만원으로 올리면 5년간 투입되는 재정은 179조3000억원으로 현행 제도 유지보다 연평균 33조5000억원이 더 지출된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금액 상향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영유아 중심으로 돼 있는 만큼 나이를 확대해 청소년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복지수당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액을 상향하기보다는 연령 확대 먼저하고 정책 평가 후 금액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 윤석열·김용현 ‘내란 재판’ 재개

12일 오전, 尹 3차공판... 지상 통해 출석해야

포도라인 피하지 못할 듯... 질문 답할지 관심

14일 김용현 등 6차공판... 비공개 이어질 듯

文정부 ‘사드 기밀누설 의혹’ 재판 13일 시작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해야 해 파면 이후 처음으로 ‘포도라인’에 설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지상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으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을 지하로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측 요청을 수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출입을 놓고 특히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입할 예정인 청사 서관 1층 회전문 앞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유력 인사들이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이 진행돼 왔다.

윤 전 대통령도 당일 파면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도라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응해 소회나 입장을 밝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이 연말까지 지정된 만큼, 서울고법은 ‘지상 출석’ 방침을 유지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당일 공판에서 처음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었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

합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도 속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이른바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해 12월 주요 피의자 중 처음 구속 기소됐다.

당당 재판은 지난달 27일, 지난 10일·18일·24일 4차례 연달아 국가안정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중앙신문단장)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고위급들의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3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및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지난달 8일 서 전 1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월 전직 군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의혹 제기로 공익감사를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시스

## 김문수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한덕수 “실무적으로 논의”

후보 교체 무산 하루 만에 회동...대선 승리 단합 강조

김 “한 모시고 경제 대도약...죽기살기로 선거 이길 것”

한 “후보의 훌륭한 리더십 하에 모두 뚝뚝 뭉쳐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당 지도부가 주도한 후보 교체가 무산된지 하루 만에 회동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찾아 대선 후보 등록을 했다. 이어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넨 한 전 총리와 포용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후보의 훌륭한 리더십 하에서 모두가 뚝뚝 뭉쳐서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트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는 노력들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김 후보를 찾기 전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김 후보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길 기원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주시는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배우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뛰어넘는 탁월한 통합력을 제가 잘 모시고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며 “어느 정치인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다. 직접 오셔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니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그러나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김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잘 돕겠다. 어떤 입장이 좋은지 실무자와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잘) 알고 (해서) 상처 많이 받더라도 죽기살기로 해서 이기라고 명령한 걸로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는 잘하겠다”며 “그 다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선배님을 잘 모셔서 훌륭하게 국민이 바라는 국가위기, 경제위기,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뉴스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내 대통령 후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포용하고 있다. /뉴스시스

곡성군 | 곡성세계장미축제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 - 25.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